

헌재, '2024헌나8' 尹 탄핵심판 본격 심리 시작

탄핵소추안 심판 절차는

윤, 14일 오후 7시24분부 직무정지 재판부 회의...헌법연구관 TF 가동 180일내 결론...인용시 60일내 대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국회는 곧바로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보냈다.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된 이날 오후 7시 24분부로 윤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는 정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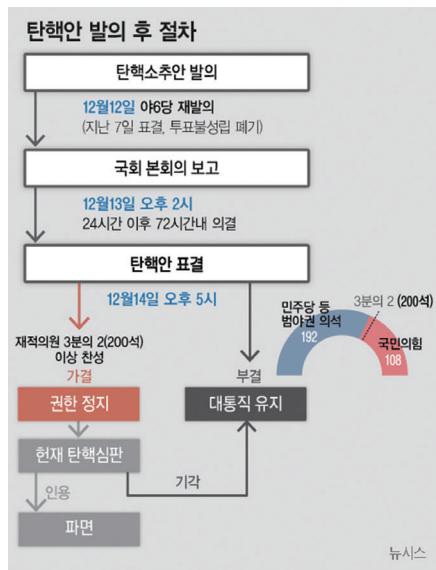
15일 정치권과 헌법에 따르면 현재는 의결서 접수 후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게 된다.

헌법 제71조에 기반해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 동시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이임 받아 직무를 대행한다.

대통령의 권한인 행정입법권 △국군통수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공무원 임면권 △법률안 거부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권 △헌법기관 임명권 등 권한을 권한 대행이 대신 행사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 이후 180일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현재가 최종적으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탄핵이 확정된다는 뜻이고, 60일 안에 새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된다.

현재는 이번주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본격적으로 심리한다. 16일 재판



관 회의를 시작으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중대한 위헌·위법성 등을 집중 살필 예정이다.

현재는 14일 오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장이 제출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접수했다. 사건번호는 "2024헌나8", 사건명은 "대통령(윤석열) 탄핵"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탄핵소추안 접수된 직후 "16일 재판관 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탄핵심판 사건 접수 첫 회의로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재판관들은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됨에 따라 주말 동안 자택에서 기록을 검토했다.

문 권한대행은 "신속·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현재는 이른 시기에 탄핵심판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쟁점 사항과 증인·



헌법재판소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했다. 현재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사진은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뉴스시

증거를 정리한다. 이후 공개 변론을 통해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한다.

현재는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과 내란죄 해당 여부를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탄핵소추 사유로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계엄법·형법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는 준비절차 진행을 담당하는 수명재판관(전담재판관) 2명을 지명한다. 주심도 전자배당으로 정할 방침이다. 주심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선 공개한 바 있다.

헌법연구관 TF도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TF 소속 연구관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한 자료 및 법리 검토를

비롯해 국내외 선례나 판례, 법이론 등을 수집·검토하는 일을 담당하게 된다.

현재법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강제 조항은 아니다. 하지만 앞서 두 차례 있었던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모두 100일 이내 결론이 났다.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중대한 법 위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헌법 질서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고 침해했다는 주장을 담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경우 앞선 두 전직 대통령 사건에 비해 드러난 사실관계가 명확한 만큼 빠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윤 탄핵 일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국회 경비대 "국회 출입 통제"
2024년 12월 4일	국회, '계엄해제 결의안' 재석 190명 전원 찬성 가결
	윤 대통령, 계엄 해제 공고
2024년 12월 5일	검찰, '내란죄'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행안위, 김용현 등 7명 '체포 요구결의안' 야 주도 처리
2024년 12월 6일	윤 대통령-한동훈 대표 회동
	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론 유지
2024년 12월 7일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정국 안정 방안 당에 일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불성립
2024년 12월 8일	한동훈, 한덕수 총리와 공동 국정운영 언급
	민주, 김건희 특검법 9일 발의·12일 처리 예고
2024년 12월 9일	민주, 윤 특검법 제출·네번째 김건희 특검법 발의
2024년 12월 10일	민주, 박성재 법무장관·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 발의
	정부, 대국민 호소문 발표
2024년 12월 11일	내란 특검법에 네번째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통과
	우원석, 비상계엄 국정조사 추진
2024년 12월 12일	윤석열, 대국민 담화 "탄핵이든 수사든 맞설 것"
	야6당,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2024년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여야 300명 전원 투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는 전망이 있다. 다만 정당한 통치 행위를 주장하는 윤 대통령이 다수의 증인을 신청해 다툼을 이어갈 경우 결론 시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김선욱 기자

노무현 63일·박근혜 91일만에 헌재 선고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헌정 사상 세번째 탄핵안 가결 노 '기각'...박 '인용' 최초 파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헌정사상 세 번째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리게 됐다.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각각 다른 결말을 맞았다.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각각 63일과 91일만에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았다.

8년 전인 2016년 12월 2일 발의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최순실 국정농단'과 세월호 참사 부실대응이 핵심이

었고, 국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34명으로 가결됐다. 당시 범야권 의석은 172석으로 여당이던 새누리당에서만 62명이 찬성했다.

그로부터 92일 뒤인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결로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집권으로 이어졌다. 대한민국 헌정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것은 처음이었다.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은 되지 않았지만 최초로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건 노 전 대통령이다.

2004년 3월 당시 야당은 노 전 대통령이 총선 국면에서 신생정당인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탄핵안을 발의했다.

국회에서는 재적의원 271명 중 1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탄핵안이 처리됐다. 하지만 현재는 갈

은 해 5월 14일 노 전 대통령의 위법행위가 있었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며 국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때문에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역풍을 맞았다.

대통령의 권한 정지가 이뤄지는 것은 여섯 번째다. 76년 헌정사에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거나 유고 상황이 발생한 사례는 4·19 혁명, 5·16 군사쿠데타, 12·12 사태,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등 다섯 차례가 있었다. 김선욱 기자



운주사와 함께하는 체험형 미디어아트를 만나보세요!

화순군립운주사문화관

(동절기) 10:00 ~ 17:00
(하절기) 10:00 ~ 18: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 연휴 휴관)

전남 화순군 도암면 천태로 91-20

전라남도 JeollaNamdo 화순군 Hwasun-gun Joia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newjak